

NEWS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광주 일반·요양·한방병원 병상 신·증설 제한

광주송정역 앞 택시 승하차 금지
7월부터...지정 구역만 이용 가능

오는 7월부터 광주송정역 앞 택시 승하차가 전면 금지된다.
광주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 명령을 내리고 송정역 일원 택시 승차금지 구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승차 금지 구간은 광주송정역 버스정류장~송정역 택시승차대(도산역 방면), 광주 송정로 시점~송정로 1번길 교차점(시청 방면) 까지다.
이 구간에서는 택시 주정차와 승객 승하차 행위 모두 금지된다.
택시 승하차는 송정역 건너편 지정 택시승차대와 송정역 3번 출구 지정 구역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승객 호출에 의한 영업(플랫폼 호출 등)은 할 수 있다.
위반 시 최대 360만원 과징금과 60일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조건불리지역·소규모 어가 직불금
도, 7월 31일까지 읍·면·동서 접수

전남도는 오는 7월 31일까지 '2025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거나 정주 여건이 불리한 섬지역 어가에 연간 80만원을 지원해 소득 보전과 활력 있는 어촌사회 조성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지급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고,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며, 조건불리지역으로 고시된 도서 지역 거주 어가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 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의 소득 안정을 돕고,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 중이며, 어가당 연간 13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5t 미만 어선어업인이나 신고어업인, 연간 수산물 판매액 1억원 미만의 양식업자,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자다. 다만 본인의 어업 외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어가 내 구성원의 어업 외 소득이 45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조건불리지역·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렬 기자

시, 제3기 병상수급·관리계획 시행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 병상은 예외

광주시내 일반·요양·한방병원의 병상 신·증설이 제한된다.
광주시는 지난 2023년 8월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병상수급기본 정책에 따라 마련된 '제3기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2023~2027)'을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병상수

를 지역 수요에 맞게 관리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병상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광주시는 2023년 9월부터 병상수, 의료수요, 병상가동률 등 지역 내 의료자원 현황을 분석했다. 이후 전문가 자문과 보건복지부 의견을 반영하고, 지난 4월 행정예고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까지 거

쳐 이번 최종안을 확정했다.
광주는 인구 대비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의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병상 대비 의료인력(의사·간호사·한의사)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병상이 과도한 실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2027년 기준으로 광주지역 병상수요·공급을 분석한 결과, 일반병상은 약 8200~9800병상, 요양병상은 약 6200~7400병상, 한방병상은 약 1700~28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해당 병상에 대해 병상 신설 및 증설이 제한된다.

광주지역은 2023년 인구대비 한방병원 수가 6.1개로 전국 평균(1.1개) 보다 5.5배에 달하며, 전국 한방병상의 16.7%가 광주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한방병상 과잉 수준이 타 시·도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 실정에 따라 한방병상도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반면 응급·분만·소아·공공분야 등 필수 의료 병상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개설심 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추가적으로 인정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협의를 통해 추가 병상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시행 전 행정절차(건축허가·용도변경 접수 등)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의료기관은 사안에 따라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계획 시행 전 접수했지만 불허된 건을 시행 이후 재신청하는 경우는 병상 신·증설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병상수급 관리계획 시행을 통해 추가적인 병상 공급을 억제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롭게 반영한 병상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0@



광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광주 광산구는 20일 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박병규 광산구청장)에서 회의를 갖고 "금호타이어 화재와 관련 신속한 원인 규명과 정확한 보상 계획을 밝히라"고 촉구 했다.

광양시·담양군, '농어촌 삶의 질' 상위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조사...전남 11개 시·군 포함

광양시와 여수시, 담양군과 무안군 등 전남 11개 시·군이 '농어촌 삶의 질 지수'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20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농어촌 삶의 질 지수'에 따르면 광양시는 전국 도농복합시 50곳 가운데 삶의 질 지수 전체 4위에 올랐다.
광양시의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활력 등 5개 영역 중 경제 5위, 문화공동체 4위, 지역활력 5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외에도 여수시(11위)와 나주시(13위), 순천시(15위) 등이 상위 30%에 포함됐다.

전국 농어촌 군 79곳 가운데 담양군이 전남 17개 군 지역에서 최상위인 11위에 올랐다. 담양군은 보건복지 분야 7위, 문화공동체 14위, 환경안전 13위, 지역활력 19위 등에서 20위권 안에 들었다.
전남 군 지역 중 상위 30%에 포함된 곳은 담양군 외에도 무안군(12위), 곡성군(13위), 신안군(18위), 영암군(21위), 장성군(22위), 함평군(25위) 등이 각각 올랐다.
한편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농어촌 삶의 질 지수'는 전국 139개 농어촌 지자체를 대상으로 했으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

해 2024년부터 매년 공표되고 있는 통합지수로, 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활력 등 5개 영역 20개 지표를 기반으로 산출됐다.
분석 결과 농어촌 군 지역의 삶의 질 종합지수는 평균 37.26점, 도농복합시는 43.29점, 도시형 도농복합시는 51.87점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유형별로 삶의 질 수준이 상이했다. 농어촌 군 지역은 고용률과 삶의 만족도, 사회활동 참여율 등의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북 완주군(49.65점), 경북 울릉군(47.14점), 전북 진안군(46.67점)이 농어촌 군 지역 상위권에 올랐으며, 도농복합시에서는 경기 이천시(55.77점), 충남 아산시(55.27점), 경기 김포시(54.32점)가 종합지수 기준 상위지역으로 나타났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시 공무원, '생성형 AI' 업무에 적용
전 직원 중 47.7% 활용...인공지능이 행정혁신 선도

광주시 공무원 절반 정도가 이미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총 2479명의 시공무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7.7%가 생성형 AI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등 인공지능 전환 행정 실현에 적극적이었다.
조사 결과, 생성형 AI 활용자 중 63.5%는 별도의 비용 없이 이용 가능한 무료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었다. 이어 28.5%는 광주시가 지원하는 계정을, 8%는 개인적으로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서비스는 '챗지피티(GPT)'로, 전체의 94%가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주 활용 목적은 보고서 작성(70.8%), 데이터 분석(9.6%), 디자인(1.1%) 순이었다. 이는 생성형 AI가 문서 작성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성형 AI를 아직 사용하지 않는 직원들의 주요 이유는 '사용 경험 부족'(64.7%)과 '필요성 미인식'(31.9%)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내 생성형 AI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여수세계섬박람회 수익사업 아이디어 공모
조직위, 내달 9일까지 접수...수상자 최대 200만원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다음달 9일까지 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수익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기간 중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로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다채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전 국민의 창의적 의견을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접수된 공모작은 별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1명),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5명) 총 9명의 수상자를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우수 제안은 박람회 수익 극대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 반영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아이디어 제안서 등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당초 진행했던 공모기간을 6월 9일까지 3주 연장했고, 더 많은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한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새로운 가치를 함께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여수·송원기 기자 swg3318@gwangnam.co.kr

Best

제19회 국가지속가능 ESG 컨퍼런스

전남신용보증재단 최우수 기관 표창 수상

앞으로도 ESG 가치 실현과 지역금융 혁신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전남신용보증재단